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佛사상가 '미셀 푸코' 저서 소개 활발-비평이어 「性的 역사」 등 사상전집도/지식·권력의 결탁 날카롭게 분석(중앙경제신문 2월15일 朴海鉉기자)

●'에드거 스노'는 행동주의기자-「중국의 붉은 별」 저자·美서 전기출판/약자에 깊은 동정·불우한 말년/매카시즘에 희생 蘇간첩누명도(한국일보 2월15일 柳承宇기자)

●지적소유권 보호압력 거세질 듯-미국 베른협약 3월1일 발효...한국 답사 이미 끝내/철저한 저작자 보호법...EC·일본도 회원/정부·출협 '가입 때 불이익' 등 대안·연구(한겨레신문 2월16일 신연숙기자)

●출판가-출협 정관계정안 우편투표 비판서 돌아/일일서각 전격계약에 문공부 영거주춤/임격정' 저작권협약 제의 관계부처 난색(한겨레신문 2월16일)

●"지식의 어용화 교조성 심하다"-주간 「출판저널」 비평특집...첫 학문적 평가 시도/「문예사전」...하이네 있으나 陸史 등 빠져 일관성 결여/「철학사전」...마르크스보다 金日成 더 상술 "주체일색"/「경제사전」...정치편향, 「자본」 설명에도 혁명교시 적용(조선일보 2월 16일 金泰翼 기자)

●1920년대 「미발표 시인」 발굴-「이용도 시집」 나왔다/일기·서간문 정리하다 신앙시 96편 찾아내/생명력 가득...당시 유행 기교시 한계 뛰어넘어(스포츠서울 2월16일 박찬기자)

●日, 전자출판물 각광-PC 버튼 눌러 '전'·법조문 쉽게 찾아/음성·영상 함께...高價·호환성 부족 단점(한국경제신문 2월16일 白昌玄기자)

●'노동문예지' 창간 러시-「노동문학」 「노동해방문학」 「일간 노동자」 등 줄이어/노동자·농민 독자층 저변 크게 확대/「민중문학론」 구체화작업 계기될 듯(중앙일보 2월16일 李京哲기자)

●책문화, 개성시대--디자인, 판형, 지질 다양화 바람/인쇄, 제본, 잉크 업계서도 호응(동아일보 2월16일 宋煥彥기자)

●발로 쓴 향토사 「虎食葬」 연구서 화제-金剛山씨 虎患 얽힌 산간지방 민간풍습 채록/돌무덤 화장터 150여곳 찾아내/풍수지리설 등 익힌 奇人...4년간 500여 태백산촌 누벼(조선일보 2월17일 崔球植기자)

●북한문학 비평 가닥잡기 시작-중견 평론가들 작품분석·이론해설 등 잇따라/무갈등론·공산주의적 인간형 등 이해틀 제시/「강한 이념성 불구 민족문학사로 수용」 주장(한겨레신문 2월17일 조선희기자)

●살만 루시드 소설 「악마의 시」 파문-회교권·서방대결로 확산/호메이니 21억원 현상 「치형령」/佛·和 등 반발...英선 단교론까지/「예술과 종교 충돌」 귀추 주목(한국일보 2월17일 黃永植기자)

●북한사전, 이데올로기 종속물-'교육'을 '혁명승패문제'로 엉뚱한 뜻풀이/주체사상 바탕서 집필...이념교육서 역할(스포츠서울 2월17일 오정국기자)

●북한의 사전-본래 역할 빛나가/4대사전 분석, 지식의 편향성 뚜렷/우리와 다른 어휘 5만여개/이데올로기, 사실보다 우선(서울경제신문 2월17일 姜升遠기자)

●출판협, 정관계정 시비-북한 출판물 반입 논란 일듯/검인정 교과서 채택 경쟁 치열(서울경제신문 2월17일)

●추가해금 5인-「林巨正」 쓴 문단 3大 천재 洪命熹/韓雪野 숙청...趙靈出은 대중가요 작사가/李箕永, 사회주의 문학 운동 주도(경향신문 2월20일)

●계간문학지 춘추전국시대-자기 색깔찾기' 활발/작년에 많이 생겨 '독자끌기' 경쟁/초빙 편집위원제 등 새로운 기획(중앙경제신문 2월22일 朴海鉉기자)

●여성용 실용서적 종류 다양해졌다' 미용·요리·공예 등 작은 주제로 전문화/발행형태도 월간서 무크 단행본까지(스포츠서울 2월 23일 김혜경기자)

●출판계, 대호황기, '서점-일반교양도서 전국적으로 수요 늘어...大學川서적상가 매출20% 증가(중앙경제신문 2월24일 金龍善기자)

●"문화공해"...저질오락잡지 범람-출판자유화 부작용...규제 부재/외설... 청소년 범죄 조장 우려도(서울경제신문 2월24일 姜升遠기자)

●"등록도 쉽고 문단기도 쉽다"-출판업, 8천억 시장 4천개사 난립/읽는 책보다 시청각교재에 눈독(중앙일보 2월27일 朴義俊기자)

●새 한글맞춤법 오늘부터 시행-~읍니다.→~습니다./ 일꾼·일군→일꾼(경향신문 3월1일 孫東佑기자)

●"3·1운동, 항일무장투쟁 등 새롭게 보자"-역사 재조명 작업활발/민중시각서 기존주장 비판/공동연구·서적발간 잇따라(한겨레신문 3월1일)

●'洪命熹의 임격정' 완결권 국내출간-미완의 대작 벽초후손 洪석중이 마무리/사회주의 시각서 윤색...85년 평양서 펴내(국민일보 3월1일)

●'악마의 詩'-국내 출판계도 슬렁/일부 회사들 번역판권확보 경쟁치열(한국경제신문 3월1일)

●과학서적 판매 10만부 시대로-평이하고 재미있게 서술...인기/외형보다 내용 구분해 선택을/「재미있는 물리여행」 14만부, 「코스모스」 12만부 이상 팔려(한국일보 3월7일 徐華淑기자)

●"부동산잡지 쏟아져 나온다"-'부동산뱅크' 복덕방 없는 직거래 가능/전문투자가 위주서 서민층 겨냥(스포츠서울 3월8일 오정국기자)

●"예술가소재 소설" 잇달아 출간/예술을 향한 열정 그려-「가까운 골짜기」/전통음악하는 두 남년의 삶과 죽음, -「민꽃소리」/환상속의 죽은 소녀를 그리는 젊은 화가-「소녀유자」(중앙경제신문 3월8일 朴海鉉기자)

●월북작가작품, 저작권분쟁 확산-해금 이후 중복출판·법정시비 잇따라/소유·양도방법 규정 등 근본대책 시급(중앙일보 3월8일 李京哲기자)

●"민족역사 전문사전 만든다"-정신문화연구원, 기초작업 91년부터 본격편찬/국사·예술 등 분야별 정리(동아일보 3월8일 洪贊植기자)

●"한 주제의 시모음집 출간분"-시문학의 대중화 위한 새로운 시도/사랑·고독 등 다양... 북녘에 띄우는 시도(서울신문 3월9일 李

憲淑기자)

●출판계, 전집 "사전류 덩핑판매" 대책부심-광고내고 저자명 없는 책 팔아/출협, '불공정 거래'로 제소검토(중앙경제신문 3월10일 金龍善기자)

●"일북작가 저작권논쟁 잇따라"-박태원 장편소설 이어 이기영 작품도/판례·기준 전무... 해금도 안된 상태/「갑오 농민전쟁」 「두만강」... 두 출판사 각각 동시출간(조선일보 3월11일 金明煥기자)

●"역사의 기록 남기며 시위현상 누벼"-장에 극복한 시인 사진작가 박용수씨/토박이말 집대성 「우리말 갈래사전」 최근 출간(한겨레신문 3월11일 신연숙기자)

●해적출판물 단속강화-지적소유권 '우선 협상국'지정에 대비/美측, '무단복제물 버섯이 나돈다' 항의/당국, 업자엔 간행물 수입 등 전업권장(서울경제신문 3월12일)

●출판사, 음반시장도 파고든다-문자의 소리화 따라 겸업 부쩍/어학서 클래식CD까지 제작(경향신문 3월13일 安健憐기자)

●한자병용 국어교본 「한국어」 출간-南廣祐교수... 국교 전과정 학년별로/6학년 마치면 1천字쯤 습득 가능하게/연구용으로 국민학교에 1만질 무료 배포(서울신문 3월14일 李憲淑기자)

●"내 주제는 오염된 언어로부터 해방"-줄거리 없는 소설로 논란 빚는 작가 이인성씨/80년 등단...최근 두번째 작품집 펴내(한겨레신문 3월14일 조선희기자)

●30년 연구성과 정리 「歷史의 방법」 펴내-서양사학계 원로 梁秉祐교수/史料비판 등 연구방법론 체계화(조선일보 3월14일 崔球植기자)

●"출판물 대형도매기구 설립 시급"-「出版物流通論」 펴낸 尹炯斗씨/우리 실정 아직 보따리장사식/정보편제 문화적 불균형 빚어(서울경제신문 3월14일 姜升遠기자)

●'북한 원전' 전면 개방해도 좋은가/찬성, 이질감 해소 북녘 바로 알기 도움(金明仁)/반대-주체사상 비판없이 수용은 무리(俞漢根)(서울신문 3월14일).

●北원전 저작권분쟁 "자율조정하자"-한출협, 「공탁금제도」 기구 설치 본격화(국민일보 3월14일 權赫鍾기자)

●'시사' 다룬 단행본 출간분-진상

알리고 역사자료 남기게/적자도 감수... 의혹 추적에 초점(한국일보 3월14일 徐華淑기자)

●"중국관계서적 다양해졌다"-정치·경제·문화·종교 등 30여종/개략적 소개 벗어나 심층연구(동아일보 3월14일 宋煥彥기자)

●한국적 신앙의 원형 담은 「韓國巫神圖」출간-경희대 金泰坤교수 전국에 산재한 130종 망라(중앙일보 3월14일 李憲益기자)

●高法서 번역저작권 국내 첫인정-韓末淑 장편소설 영역 표절시비 대법원으로/「우수한 번역이다 著作權침해」...판결이유/「원작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」...한국문학진흥재단선 상고(중앙일보 3월15일 李京哲기자)

●새로 지원받은 季刊誌 증가-「창작과 비평」 등 7종...권당 430만원-고료 인상...월간지보다 많아질 듯(중앙경제신문 3월15일 朴海鉉기자)

●부술리니의 「여성서간집」 인기/20년 집권중 받은 편지만 모아/伊여성들의 가정·사회적 관심 드러나(한국일보 3월15일 柳錫悅동신원)

●"유아도서범람...이렇게 고르자"-발달수준 맞게 지식보다 흥미/약간 어렵고 호기심 유발해야(중앙경제신문 3월16일 李德榮기자)

●문학비평활동 30년 정리-평론집 「순수문학비판」 펴낸 김우종교수/요즘의 배타적 비평경향 잘못된 것/「앞으로 분단문학 문제 다뤄보겠다」(스포츠서울 3월16일 오정국기자)

●「한국문학 筆禍작품집」 나와 관심-우리문단 '고통의 이면사' 한권에 엮어/46년부터 87년까지 18건 자세히 소개(세계일보 3월16일 梁憲錫기자)

●"외국 전문출판사가 늘고 있다"-철학(서광사)·미술(열화당)·노동(석탑) 등/넓어진 독자층 바탕 분야별 터잡감으로(한겨레신문 3월16일 신연숙기자)

●"잡지는 많지만... 내용·형식 모두 그제 그것"-87년 이후 등록급증... 현재 3500여종/기존 잡지들 못벗어나 '몰개성·획일주의'/시장만 영세화...개혁자적인 노력, 도전 아쉬워(세계일보 3월17일 申敏亨기자)